

다시 십자가로 오신 님이여

5·18민중항쟁 34주기 추모시-전 속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덤이 운다, 태종의 아기가 운다, 만삭의 배를 붙들고 어미가 운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30분 남편을 기다리던 꽃다운 스물셋 만삭의 최미애님 머리에 M16총알이 날아들었다...

공수부대의 발포가 시작되었을 때 도청에서는 애국가가 확성기로 피도하듯 울렸지요 국민을 조준하려는 신호로 애국가를 앞세운 군인이 있었지요...

죽음과 절망에서 걸어 나와 희망을 꽃피운 님이여, 어둡고 깊은 골짜기까지 향기롭게 피어나는 님이여, 얼마나 많은 꽃잎이 생목숨으로 더 멀어져야 잘못이 잘못을 깨치는 새날이 올까요

명든 가슴들을 위해 다시 십자가로 오신 님이여, 남들의 뜨거운 피가 태반이 되고 땀줄이 되어 기어어 태어나고야 말, 풀꽃들이 마음껏 피어나는 민주와 자유와 평화의 그 꽃밭 태교하는 어미의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 불허 논란 속

80년 ‘오월 광주’ 담은 민중가요들 주목 받는다

‘오월의 노래2’ ‘광주출전기’ 등

5·18 민중항쟁 34주년 기념식이 결국 파행을 빚게 됐다. 국가보훈처와 5월 단체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를 놓고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은 탓이다.

국가보훈처와 5월 단체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를 놓고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은 탓이다. 5월 단체가 5·18 기념식 불참을 선언하면서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관철시키려 했던 이유는 ‘5월 광주’를 담은 곡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5월 광주를 대표하는 곡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 광주를 대표하는 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참혹했던 5·18 당시 상황을 묘사한 노래로는 무슨 곡들이 있을까.

전남대 선후배 사이인 윤상원과 박기순은 지난 1981년 옛 망월 묘역에서 영혼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전남대 4학년이던 김종률씨가 이 영혼 결혼식을 보고 곡을 만들었다. 가사는 소설가 황석영씨가 백기완씨의 시 ‘땃바리’를 개작해 붙였다.

이렇게 탄생된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O)에 의해 전국으로 유포되면서 불과 한두 해 사이에 ‘5월 광주’를 대표하는 노래가 됐다. 이 노래는 그후 1980년대 민주화운동 세대 전체의 정서를 상징하는 노래로 자리매김했다.

5·18을 직접적으로 다룬 최초의 노래로 알려진 노래는 문순현씨가 지난 1981년 만든 ‘오월의 노래2’다.

‘별별 내리는 날 뜨거운 바람 부는 날.../여기 죽지 않은 목숨에 이 노래 드리오...’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고 괴로움이었던 한 양심적인 지식인의 인식을 잘 표현했다는 평이다.

이 노래와 함께 5·18을 다룬 노래는 ‘오월의 노래2’다.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 부처림 질리워진 어여쁜 너의 젓가슴/ 오월 그 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라는 노래말이 담긴 이 곡은 작자 미상으로, 참혹했던 5·18 당시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그린 노래다.

‘동지들 모여서 함께 나가자, 무등산 정기가 우리에게 있다...’로 시작되는 광주 출전가는 범능(속명 정세현) 선님이 만들었다. 그는 80년 5월을 겪은 뒤 노래 운동에 관심을 두고 87년 노래 ‘진구’, 90년 ‘우리소리연구회’를 창단해 활동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

이 곡은 1980년대 금남로 등 시위 현장에서 빠지지 않았던 대표적 민중 가요로 자리매김했다. 광주 출전가는 기존의 광주의 노래들과 달리 5·18의 혁명성과 역동성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광주 출전기’와 맥을 같이 하는 노래로는 ‘혁명 광주’(1985년), ‘전진하는 오월’(1985년), ‘진군가’(1988년) 등이 있다. 이들 노래는 1984년 전두환 정권이 유화국면을 조성하면서 사회운동이 활기를 띠게 되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5월항쟁 자료실 ‘태극기’

15일 오전 광주 5·18기념문화센터를 찾은 동명중학교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 자료실에서 80년 5월 당시 실제로 쓰였던 태극기를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8 해질 19:30, 달출몰 21:02 달몰 06:36

주말 날씨 맑음,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다.



Table with 2 columns: 지역별 날씨 (Regional Weather) and 온도 (Temperature). Lists cities like 광주, 목포, 여수, 나주, 완도, 구례, 강진, 해남, 장성 and their respective weather and temperatures.

Table with 2 columns: 바다 날씨 (Sea Weather) and 풍향 파고 (Wind Direction and Height). Lists sea areas like 서해, 남부, 남해, 서부 and their weather conditions.

Table with 2 columns: 목포 (Mokpo) and 여수 (Yeosu) weather and temperature details.

Table with 2 columns: 주간 날씨 (Daily Weather) and 일일 날씨 (Daily Weather). Shows weather icons and temperatures for dates from 17th to 23rd.

Table with 2 columns: 생활지수 (Living Index) and 생활지수 (Living Index). Lists categories like 식중독, 운동, 빨래 with their respective indices.

‘임 행진곡’ 제창도 못하는데... 기념식 참석, 무슨 의미 있겠나

5월단체, 대국민 호소문 보존처장 해임 촉구 투쟁

5·18 민중항쟁 34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는 15일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결정과 관련해, 5·18 기념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5·18 기념식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행사위는 이날 5·18 기념재단 사무실에서 연 대국민 호소문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공식 식순으로 제창되지 않는 한 정부주관 기념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하지 않겠다’면서 “5·18 민중항쟁의 정신을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18 전야제 취소와 관련해선 “전야제는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항의 표시와 세월호 참사의 국민적 추모 대열에 동참한다는 뜻에 따라 전면 취소 결정을 재확인한다”며 “유사한 행사는 행사위와 무관한 행사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에 대해선 “단순한 노래가 아닌

대 정부가 5·18의 의미를 왜곡하고 폄하한다면 오월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내년에도 정부의 이런 태도가 계속된다면 올해보다 더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6월 국회에서 기념곡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박근혜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회의 결의를 지키지 않는 보존처장을 즉각 해임해야 함은 물론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과 제창 요구를 적극 수용해 국민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박근혜 국가보훈처장의 기념식 참석과 관련해선 “5·18 기념식에 불참하니, 막을 생각도 없다”며 “기념식 이후 해임 요구 등 계속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롯데쇼핑, 창고형 할인점 건축불허 취소 소송 승소 광주 북구 중소상인들 반발 예고

광주시 북구가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내세워 할인 마트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 북구 일대에만 대형 유통업체가 3개의 할인점 입점을 추진중이라는 점에서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희)는 15일 롯데쇼핑(주) 광주시 북구정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3월 광주시 북구 신원동 860번지 일대에 신청한 창고형 할인점 건축허가가 불허가 처분되자 5월 광주지법에 소송을 냈다. 북구는 판결문이 도착하면 법률 자문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김지수기자 dok2000@

Advertisement for 'Yehyang High-Speed Tour' (예향 고속관광) featuring buses and a group of people. Text includes '여행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회사 출·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and contact information for Yehyang Tour.

Advertisement for 'Imperial Club' (임페리얼 클럽) featuring a list of professions and ages for members. Text includes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결혼 정보',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and contact information for Imperial Club.